

정낙추 만평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마을 3

편집인의 글

충남 농촌마을정책의 전환기 과제 찾기 / 구자인 4

특집 마을 경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약속

농촌 경관, 마을 사람들이 가꾸는 삶의 무늬 / 김정섭 10

농촌 경관의 변화사와 공간 주권 / 복권승 16

농촌 난개발 실태와 농촌 공간계획 / 성주인 24

빈집의 사회학, 농촌 주거환경과 빈집 문제 / 최령 32

농촌경관협정, 주민들의 합의 형성이 핵심 / 박혜은 40

마을을 그리고, 마을에 색을 입히다 / 김정민 45

우리도 시골에 가서 살아볼까 / 이태호·우연희 53

청년, 농촌에 살어리랏다 / 이준표

아낌없이 더주오 농업회사법인 대표 박주호 씨 58

오진아농촌치유농장 대표 오진아 씨 68

우리 마을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포 나루터의 추억이 어린 작은수해마을 / 김기영 78

지상중계 / 2020년 제1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 in 공주

자치 분권 시대의 충남형 마을만들기 84

정책 동향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및 공고(2019.12.11) / 조영재 88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것들 / 김종화 90

농업유산, 농업·농촌 자원 가치의 재발견과 재인식 / 유학열 92

지원센터 활동 보고

2020 광역마을동아리 육성사업 모니터링 워크숍 94

필자 소개 98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현황과 연락처 100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마을



충남 농촌마을정책의 전환기 과제 찾기

구자인/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농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으며 그 이후 사회(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합니다. 여기에 도시재생뉴딜, 어촌뉴딜 외에도 한반도뉴딜, 건설뉴딜, 소프트뉴딜, 그린뉴딜 등 각종 뉴딜 사업에 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 자체가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메르스나 사스, 신종플루처럼 앞으로든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전염병들이 계속 나타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농촌 마을공동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이동성과 밀도를 특징으로 하는 대도시가 특히 위험하다는 점, 그와 정반대 특징을 가진 농촌은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단순 비교일 수 있지만 사람과 물자, 농산물이 전세계적으로 이동하는

사회는 높은 위험성도 동반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반면에 농촌 사회는 생태학적으로 훨씬 건전한 셈입니다.

이처럼 포스트코로나의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측면에서 지금 상황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마을공동체가 살아 있다면 이런 위기 시대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자연과 더불어 공생하고(환경적 지속가능성), 멀리 이동할 필요성이 줄어들며(사회적 지속가능성), 서로 상부상조하는(경제적 지속가능성) 지역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오래된 미래’였습니다.

농촌마을정책의 세 가지 제안

그렇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이런 가치와 방향성에 주목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누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여러 논의가 필요할 것인데, 다 함께 생각할 소재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롭게 시작하는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식품부의 마을만들기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는데, 광역(도) 차원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은 충남이 유일합니다. 현재 사업지침(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고, 이런저런 의견 수렴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충남에 축적된 경험을 잘 살려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마을정책의 융복합을 계속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는 단일 사업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마을의 경제(농업)와 교육·문화·복지·환경 등이 모두 종합되어야 합니다. 충남에서는 이런 방향을 계속 추구하여 행정조직 개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올해는 충남도의회 주관으로 연구 모임(대표: 김명숙 도의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칸막이를 극복하며 주민자치와 사회적 경제, 푸드플랜, 마을교

육공동체, 농촌복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보다 혁신적인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수당 도입을 제안합니다. 행정리 마을 단위로 300만 원 정도의 정액 예산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 제안입니다. 기존의 공모 사업(보조금) 방식으로 시행된 각종 마을 사업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자는 문제의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농민수당, 농식품부가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또 신규 도입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과 연계하면 효과가 더욱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현장 활동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문연수원 설립도 적극 검토할 시점입니다. 각종 일자리 사업은 아주 많지만 현장 중심으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활동가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처럼 현재 상황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하며, 또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시행해야 할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여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농촌 재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학습 모임을 열고, 행정과 정책 토론회도 자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호 특집 주제는 ‘마을 경관’입니다

농촌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그리고 마을 인심에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깨끗한 물과 공기, 풍요로운 자연환경, 아름다운 마을 경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농촌은 부끄러울 정도로 오염되었고 지저분합니다. 난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자연이 황폐해지고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이 문제들은 행정이 주도한 책임도 있고, 마을의 합의가 사라지고 주민들 각자의 이기심이 작동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농촌

다움’이 무너진 곳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마을만들기는 마을가꾸기가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하고, 봄이 되면 화단도 가꾸고 열심히 관리하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경관은 주민 전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기반 산업인 농업 활동이 자연과 더불어 건전하게 이루어질 때 생활환경도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을 서로 억제해야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마을 전체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주민 전체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을 경관(마을가꾸기)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영역이기도 합니다. 농촌이 ‘농촌다움’을 잃어버린다면 도시와의 경쟁력(?)도 사라질 것은 뻔합니다. 어떻게 농촌을 농촌답게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이번 특집 주제에 귀한 원고를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읽고 토론하고 내가 사는 마을에서 좋은 사례를 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공부하고 토론한 결과를 투고해주시면 『마을독본』의 가치가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또 매월 1회 열리는 대화 마당에 참여하여 토론하고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7월(태안)과 8월(당진)은 지난 특집 주제였던 ‘마을회관’에 대해, 그리고 9월(부여)과 10월(보령)은 이번 ‘마을 경관’이 주제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에 열립니다. 많은 투고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